코로나19에 日불교도 '비상'

종조 기념법회 · 불사 낙성법회 대폭 축소

박영빈 객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본불교계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중지에 나섰다. 3월 2일, 일본의 '교토신문'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보도했다.

일본불교계가 조정에 나선 법회들은 대부분 4월에 집중해 있다. 교계행사에 양력을 채택한 일본불교계는 4월 8일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비롯해 주요한 행사들이 4월에 몰려있다.

먼저 대형 종단들인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총본산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와 정토종의 총본산 지온인(知恩院)은 4월에 봉행될 예정이었던 법회와 행사들을 대폭 축소했다. 교토에 소재한 두 사찰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유명해 연중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히가시혼간지 측은 4월 1일부터 나흘간 예정됐던 연례 춘계법회의 일정을 과감하게 단축했다. 춘계법회는 정토진종의 종조인 신란상인의 탄생을 기리는 대법회로 올해는 전국에서 약 8000여 명의 신도들이 히가시혼간지를 참배할 예정이었다.

히가시혼간지 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나흘간의 법회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정된 기념강연과 심포지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회에 참석을 신청한 각 참배 단체와 사찰의 대표자들에겐 단체참배를 거절하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

양력 사용하는 일본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비롯한 행사
4월 중 대부분 예정돼 있어
사중행사 또는 연기 결정해

나 법회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히가시혼간지는 "법회는 이미 정해진 소임자들과 대중스님들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 참배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한 이에 한해 법당의 출입을 허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온인은 4월 중순 예정된 행사를 완전히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온인은 중심법당인 미에이도(御影堂)의 복원수리



춘계법회를 대폭 축소한 히가시혼간지. 사진출처=위키피디아

공사를 완료하는 대규모 낙성법회와 부대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또한 종조인 호넨 스님의 불상을 복원을 마친 미에이도로 이운하는 법회 역시 외부인을 제외한 채 지온인의 대중스님들로만 오전 중에 회향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온인 측은 "연례로 진행해온 종조 호넨 스님의 원적 기념법회 역시 지온인의 대중스님들로만 진행되며, 사부대중에 함께 진행했던 철야 염불정진도 올해는 중지"라고 발표했다. 단 미에이도 자체만은 이운법회를 마친 4월 13일 오후부터 일반에 공개되나 개인위생과 감염예방 대책을 철저히 한 가운데 참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도내의 하지오지(八王子)시 불교연합회 역시 4월 초순에 준비 중이던 합동 봉축행사를 중지, 각 사찰에서도 최대한 봉축행사를 축소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불교회 측은 "부처님의 탄생을 모두 함께 기리는 뜻깊은 법회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일부 사찰에서 본 행사일에 맞춰 봉축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각자 건강상태를 확인 후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일본 각지에서 준비 중이던 동일본 대지진 위령법회 등도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본불교계 행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최고 원로승 잠들다

최고승가위 지도자 슈다난다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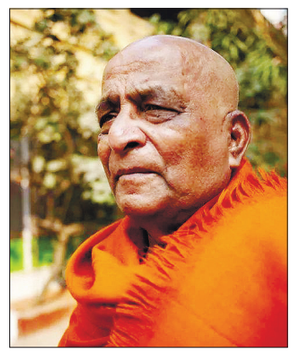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의 종교화합을 위해 힘써왔던 고승이 입적했다. 3월 4일 불교 전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방글라데시 불교의 최고 원로였던 상가나야카 슈다난다 마하테로(Sanghanayaka Suddhananda Mahathero)스님의 입적소식을 보도했다.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슈다난다 스님은 지난 3일, 수도 다카에 소재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입적에 들었다"고 밝혔다. 세수 87세.

1933년에 태어난 슈다난다 스님은 방글라데시 최고 승가위원회의 지도자인 '상가나야카(Sanghanayaka)'로 활동해 왔다. 스님은 주로 불교와 이슬람교의 오랜 불화의 역사를 종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 현지에서 불교는 방글라데시에서 세 번째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슈다난다 스님은 수백가구의 소외된 이슬람가정에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고아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스님은 2012년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인 '에쿠셰이 파닥(Ekushey Padak)' 훈장을 수훈했다.

생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암살시도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



방글라데시 최고 원로 슈다난다 마하테로 스님. 사진출처=니르바나피스

고 슈다난다 스님은 "우리는 모두 방글라데시 국민이며, 서로 도와야 우리의 조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간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의 입적소식을 들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스님은 비폭력의 선구자이며 사회봉사에 헌신한 평화와 인류애의 전달자였다. 계급과 신념,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합을 강화한 공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슈다난다 스님의 법구는 생전 주석하던 담마라지카 사원으로 모시고, 제자와 불교도, 추모객들이 조의를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전쟁 중 공출된 조사상, 75년만 복원

시텐노지, 금속회수령에 잃은 전교대사상 6일 복원 회향식

일본 최초의 관사인 시텐노지(四天王寺)에서 뜻깊은 복원이 이뤄졌다. 3월 8일, 일본의 '오사카 히니지 신문'은 복원된 전교대사상 봉안법회를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중 금속회수령으로 공출된 지 75년만이다.

593년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국가의 명으로 건립한 시텐노지는 창건 이래 일본불교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일본불교의 많은 위인들이 수학하거나 참배한 역사가 있다. 이 중 일본불교의 조사인 전교대사 사이쵸(傳教大師 最澄) 역시 50세에 제자들과 함께 시텐노지를 참배했다. 당시 사이쵸 대사는 쇼토쿠 태자가 선양하던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을 창설, 남은 일생을 〈법화경〉의 가르침을 펴는 데 바



75년 만에 복원된 전교대사 사이쵸의 동상. 사진출처=오사카 히니치 신문

치겠노라 서원했다. 사이쵸 대사는 시텐노지를 참배해 자신의 서원을 게송으로 지어 쇼토쿠 태자 사당에 봉헌했다. 이 게송은 현재 사이쵸 대사의 문집에 수록돼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시텐노지의 금당과 쇼토쿠 태자의 사당 사이에 사이쵸 대사의 동상이 봉안돼 있었다. 시텐노지 측은 "공출 전의 대사상은 쇼토쿠 태자를 서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조성돼, 노천에 모셔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한국에 내려진 금속회수령으로 시텐노지는 당시 세계 최대의 범종으로 불리던 대범종(약 64톤)과 구세관세음보살상, 보현보살상, 부동명왕상, 신란상인상 등의 금속 불상들과 불구들이 대거 공출되면서 사이쵸 대사상도 함께 공출됐다.

시텐노지는 내년의 전교대사 원적 1200주년과 오는 2022년의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사이쵸 대사상의 복원을 결정했다. 대사상은 공출 전 촬영되었던 사진과 기록화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참고, 전문 복원업체와 협의 끝에 약 10개월 만에 재탄생했다. 또한 당초에 노천불이었던 것과 달리 작은 전각을 세워 봉안하기로 결정했다. 전각의 이름은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법화일승(法華一乘)'에서 따와 '일승원(一乘院)'으로 명명하고, 쇼와 일왕의 글씨 가운데 '전교(傳教)'를 집자해 편액으로 걸었다.

지난 6일 봉행된 봉안 낙성법회에서 시텐노지 총무부장 요시다 메이료 스님은 "일본불교의 다양한 종파와 조사들께서 시텐노지에서 수행하신 족적을 불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창건주인 쇼토쿠 태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전교대사께서 다시금 돌아오시게 돼 마음깊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텐노지 측은 "연례행사로 진행해왔던 전교대사의 원적일 기념법회를 앞으로는 이곳, 일승원에서 봉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불교사원, 총격사건 피해 입어

워싱턴주 올림피아서, 인명피해는 없어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시내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3월 2일 미국의 지역언론 'KIRO7'은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시내에 위치한 불교사원 투쉬타 카담파(Tushita Kadampa)사원을 향한 총기난사 사건을 보도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시타 사원과 동일 건물에 있는 사업장 2곳이 총격 피해를 입었다.

올림피아시 경찰당국은 "2일 새벽 오전 3시 15분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총격피해를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탄약통과 권총으로 발포한 총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은 최소 5발의 총을 쏘고 도주했으며, 현재 수색중"이라고 전했다.

투쉬타 카담파 사원은 총격으로 정문에 탄흔이 남고,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아침 예불이 일시 중단됐으며, 파손된 부분은 전기 테이프와 나무판자 등으로 임시 보수했다. 그 외 사원 내부의 불상과 법구들에 있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시타 카담파 사원에 상주하는 켈상 타르텐 스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렵다. 총격사건으로 매우 혼란스럽긴 하나 불교도들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들이다. 총격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얼른 극복하기 바란다"며 사건 피해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매우 불안하다"며 경찰당국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현재 올림피아시 경찰은 범인색출을 위한 보안 카메라 확인과 목격자 등의 자료를 수색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